

4/1/18

설교 제목: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맞이하는 부활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한복음 5:28-29

(요 5: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절관주** 고전 15:52

Happy Easter!!!!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따로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구별해서 지킵니다.

기독교는 부활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이 세 절기들을 성대히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부활절을 가장 크게 여깁니다.

기독교가 부활절을 중요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곧 기독교 교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을 축하하는 것이고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시작이 성탄이라면 부활은 기독교의 완성입니다.

저에게 만약 성경을 두 글자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치 않고 '부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이 세상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며 왜 일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길어야 이 세상에서 100년 살고 그 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면 굳이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일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물질을 얻는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거나 골프를 치면서 유용하게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잘 생긴 사람과 못 생긴 사람.....등등.

그러나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요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 언급한 것이 나옵니다.

(행 24:15)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은 악인은 죽고 의인만 부활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부활하여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내세가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계 제사장으로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던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 첫 설교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라고(행 2:32)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 끌려나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행 24:15)고 했습니다.

고대 헬라의 철학자들도 영혼 불멸의 교리(the immortality of the soul)를 가르쳤습니다.

플라톤은 영혼선재설 즉 인간의 영혼이 ‘이데아’라고 부르는 세계에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가 육신과 결합하여 출생이 시작되고 육신 안에 있었던 영혼이 떠나가면 사망이 온다고 주장하면서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으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의 윤회설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의 교리는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육신과 결합되었다가 육신을 떠납니다. 이것이 사망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마지막 날에 영혼과 육신이 재결합되어 부활합니다. 그리고는 육신과 영혼 모두가 불멸합니다.

물론 부활할 때의 육신은 지금의 것과는 다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말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길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이 선한 일을 행한 자인가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한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의인인가 아니면 악인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이나 악의 개념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혹은 의인이라고 하고 그와 반대되는 사람을 가리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혹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의인과 악인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정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자신의 행동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한번도 짓지 않고 사는 인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아담이 지은 원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에 대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십자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에 관해 주신 말씀입니다.

1. 부활의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 5: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모두 부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란 사망한 사람 모두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죽은 자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2. 부활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 5: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부활의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모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죽은지 나흘이 지나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심으로 불러내신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말씀으로 무덤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불러내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보겠습니다.

(살전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전 4: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날에는 세 가지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때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소리 중 하나는 주님의 호령 소리입니다.

그 날에 아마도 주님께서 큰 소리로 “죽은 자들이여! 다 나오너라”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모든 죽은 자는 다 살아나 무덤에서 나올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천사장이 천사들을 모두 집합시켜서 부활한 인간들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도 노아도 살아나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살아날 것입니다.

아합 왕도 이사벨도 므낫세 왕도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살아날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바울도 살아날 것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들과 가족들도 모두 살아서 만날 것입니다.

이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은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3.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두 부류로 구분되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부활(the resurrection of life)과 심판의 부활(the resurrection of condemnation)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영생하는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이란 유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당하여 죽지도 못하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유향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외면해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 10:28)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여! 나오너라!”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 날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날은 신자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되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통해 유향 불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장차 믿는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을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요한복음 5:26)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 부활의 영광도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선진들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나 미혹을 당한다 해도 굳세게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별처럼 영롱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별처럼 영롱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